■ '존폐 기로' 아트광주 대안은 …

청년작가 발굴 전문 아트페어로 전환

네트워크 강한 화랑협회 위탁도 검토할 만

최근 폐막한 '아트광주'(9월6~9일)가 저조한 흥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문화계에서는 아트페어의 존폐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이상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광주시가 주최하는 만큼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길러내는 등용문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성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양화가 강운씨는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작품이 컬렉터들의 소장목록에 오르기 까지에는 최소한 5~7년이 걸린다"면서 "아트광주 역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미술인들은 "이번 아트광주의 부진은 지난 1회 대회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라면서 "차제에 가칭 '아트광주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미술의 도시'에 걸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작가에 주목하라=전문가들은 화랑협회가 주축이 된 KIAF, 대구아트페어와 달리 광주시가 주최하는 아트광주의 '차별성'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트페어는 단순히 작품을 거래하는 장터 뿐만 아니라 지역작가를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쇼윈도 역할도 하는 만큼 단순히 판매실적으로만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작가들을 스타작가들이 아닌 지역의 신진작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등용문으로 대회 성격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아시아 문화중심프로젝트에 맞춰 광주 뿐 아니라 아시아의 20~30대 젊은 작가, 또는 레지던시 출신 작가들을 대상으로 참여작가들을 '특화'시키는 방안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심상용(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교수는 "최근 세계 미술계의 흐름은 비엔날레에서 아트페어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다"며 "아트페어는 실험적인 작가를 주목하고 그런 작가들을 발굴하는 갤러리(화랑)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전문기관에 맡겨라=아트페어의 흥행을 좌우하는 잣대 중 하나는 갤러리 수준이다. 유명갤러리는 스타작가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곧 아트페어의 퀄리티와 직결된다. 국내외 아트페어들이 화랑협회 등의 '네트워킹'을 활용해 내로라 하는 갤러리유치에 올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올해 아트광주가 유명 갤러리들을 끌어 들이지 못한 데에는 국내외 미술계 네트워킹이 없는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한 것도 한 원인이다. 물론 독립큐레이터 이지윤씨를 영입해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렸지만 국내는 물론 외국 갤러리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재단이 끌고 가기에는 한계였던 것. 더욱이 기획인력 25명으로 1년에 5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 재단의 여건상 지속적으로 아트광주를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양화가 유수종씨는 "아트광주가 비엔날레와 더불어 광주의 문화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한국화랑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라=지난 2010년 아트광주가 창설된 배경에는 광주비엔날레와의 시너지 효과가 작용했다. 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한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비엔날레 전시관과 아트페어 행사장인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비엔날레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 비엔날레 관람객들을 행사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비엔날레 전시관 가까운 곳에 아트페어 또는 아트페어를 대신하는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미술시장을 키워라=이번 아트광주의 파행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열악한 미술시장을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광주는 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이지만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는 매우 한정돼 있다. 올해 아트광주에 참여한 박영숙(서울 트렁크갤러리대표)씨는 "부대행사로 열린 핸드백 할인판매행사(MCM VIP 라운지)에는 방문객들이 몰리고 작품을 판매하는 부스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광주가 왜 비엔날레를 개최했는지 궁금하다"며 열악한 광주의 미술시장을 꼬집었다.

따라서 광주미술협회 등을 중심으로 '거실에 그림 한점씩 걸기'와 같은 문화사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미술시장을 살려 나가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문재인·안철수 다른 듯 닮은꼴 행보

◉초등 성적
文, 성적표 미·양 많아
安, 수는 이름 '수' 뿐
◉다른 인생
인권변호사로 활동
'성공한 CEO' 출신
◉인생 목표
1년 전에도 '정치권 밖'
"대통령 꿈꾸지 않았다"
◉롤모델은?
미국의 대공황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 꼽아

범야권 대선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다른 듯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우선 이들은 판이한 인생궤적을 달려왔다. 유신시절 학생 운동권 출신인 문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생활을 거쳐 지난 4·11 총선 출마로 정치권에 본격 뛰어들었다.

반면, 안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자로 이름을 떨친 '성공한 CEO' 출신이다. 이후 카이스트, 서울대 등에서 교편을 잡으며 대학교수로 변신했다.

하지만, 둘은 부산 출신이며 정치적 야망이 크지 않았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부산 출신=둘은 모두 부산 출신이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산 영도로 이사해 경남고를 졸업했고, 부산에서 태어난 안 원장은 부산고를 나왔다. 둘 모두 부산의 최고 명문고를 나왔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재'가 아니었다고 회고한다.

문 후보는 '문재인의 운명'에서 "5학년까지 통지표에서 수는 드물고 대부분 우나 미에 양도 있었다"고 적었다. 안 원장도 '안철수의 생각'에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했다"라며 "성적표에 수, 우가 별로 없고 '수'가 보이긴 했는데 제 이름 철수의 '수'"라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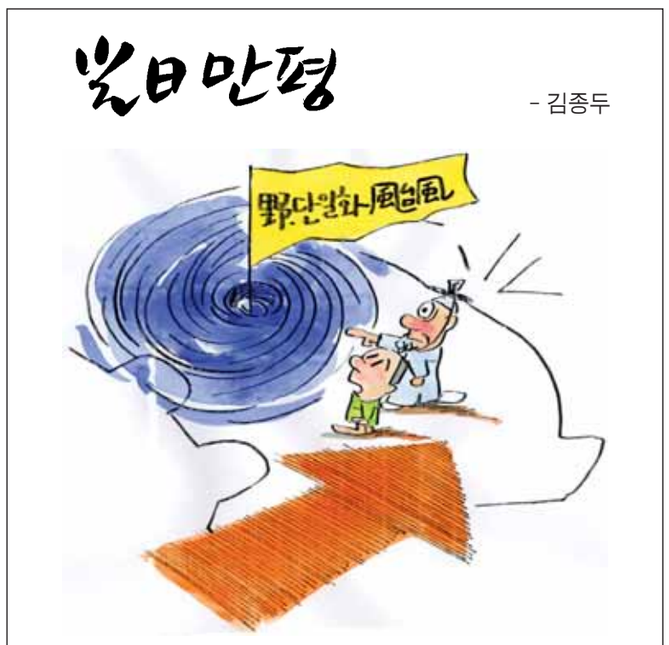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불과 1년여 전만 해도 기성정치권 밖에 있던 두 사람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본인들도 대통령이 인생이 목표는 아니었다.

그런데 안 원장이 먼저 '혜성'처럼 떠올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전후로 국민 사이에 유력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해 6월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낼 때까지도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지난 1월 공중파 방송의 한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롤모델은 루스벨트=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저서에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는다고 밝혔다. 대공황 위기를 극복한 뉴딜정책에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둘 모두 '정의'라는 가치에 주목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문 후보는 16일 수락연설문에서 공평과 정의를 국정운영 원리로 제시했고, 안 원장도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정의·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이 태풍에나 기대를 해보자

"일자리가 먼저다"

문재인 대선주자 첫 발걸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 태평양물산에서 '일자리가 먼저입니다' 주제의 간담회를 마친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일자리가 먼저다!'라는 선창에 '파이팅!'을 세번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일자리'를 화두로 내세우며 대선주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들러 참전용사 묘역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문 후보는 구로 디지털단지의 한 업체로 자리를 옮겨 '일자리가 먼저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대선 출마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송병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 등 각 기업 대표와 양대 노총 직능별 위원장,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성장의 결과도 일자리여야 하고 경제민주화의 성과도 안정된 일자리로 귀결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가 정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勞)·사(社)·정(政)은 물론 노·노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신이 밝힌 '다섯 개의 문'을 중심으로 한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 후보는 18일 오전에는 대학 청소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들을 계획이다. 오후에는 경제 분야 원로들과 오찬을 겸한 국가경제위기 극복 간담회를 갖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 운용 방향, 민생경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이번 주 성장 동력을 주제로 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며, 다음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봉하마을 방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